

가을 스마트폰 시장 4강 자존심 대결

아이폰7 흑평에도 연일 흥행

보안 강화 블랙베리 부활 노력

갤노트7 28일 판매 재개 예정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이하 갤럭시 노트7) 리콜 사태로 얼어붙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LG전자가 내놓은 V20과 애플의 ‘아이폰7’ 출시를 앞두고 아이폰 이전 최고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로 꼽혔던 블랙베리가 3년 만에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국내 시장에 복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갤노트7’는 리콜에 이은 판매 재개를 통해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을 ‘스마트폰 대전(大戰)’의 최대 관심사는 아이폰7의 성적표다.

지난 16일 미국 등에서 먼저 출시된 아이폰은 기대 이하라는 세간의 혹평 속에서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북미에서 ‘아이폰6’에 비해 4배나 많이 팔리며 초도 물량이 매진됐는데, 방수·방진, 듀얼카메라 등 기능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갤노트7’ 리콜 사태에 따른 반사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 하반기 출시 스마트폰



아이폰7

V20

프리브 블랙베리

갤노트7

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아이폰7’ 시리즈의 예상 박선전에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1~3차 출시국 명단에서 빠진 한국은 이르면 10월께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거진 소음문제와 미흡한 방수기능에 대한 불만이 흥행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LG전자는 애플보다 한 달 앞서 ‘V20’을 선보이며 프리미엄폰 시장을 선제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오는 29일 출시되는 ‘V20’은 강화된 오디오·비디오 기능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세계적인 오디오 브랜드 뱀앤올름슨과 협업해 고음질 사운드를 구현하고, 세계 최초로 전·후면 광각카메라를 탑재했다.

LG전자는 최대 46만원의 제휴카드 할인 등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내놓으며, ‘갤노트7’ 사태로 공백이 생긴 시장 선전에 나섰다. 하지만 출고가 90만원에 육박하는데, 혁신보다 안정성에 중점을 뒀을 출시한 신제품이라는 점이 시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블랙베리는 지난 20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프리브 바이 블랙베리’(PRIV by BlackBerry)를 출시했다. 화면에 뜨는 가상 키보드 외에도 슬라이드 방식으로 빼내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를 탑재했다.

블랙베리가 내세운 ‘프리브’의 강점은 보안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접근을 모니터링하고, 앱 사용 중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스마트폰 보안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해킹 피해를 효과적으로 차단,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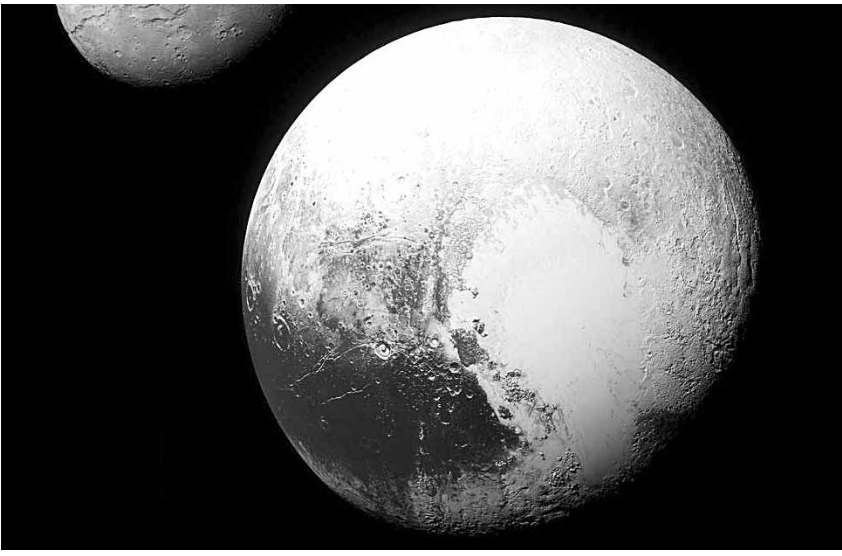
출고가도 59만8000원으로 저렴한 편에 속하지만 이미 글로벌시장에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제품인데다, 국내 매니아층도 적어 좋은 성적을 거둘지는 장담키 어렵다.

‘갤노트7’은 대대적인 리콜을 계기로 재기를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까지 국내에 40만대를 공급해 교환을 마무리한 뒤 오는 28일부터 판매를 재개할 방침이다.

교환 첫날인 19일 전체 물량의 5%인 2만여대가 교환됐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예정된 시점까지 교환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환에 비해 환불을 요청한 ‘갤노트7’ 이용자는 미미한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당수 이용자가 환불 등 ‘갤노트7’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점은 삼성전자라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이용자 외 새로운 소비자를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할 상황이다.

/박기용기자 pboxer@·연합뉴스



하트 무늬가 선명한 명왕성.

〈NASA 홈페이지〉

명왕성 빙하 형성은 ‘♡ 모양’ 지형 때문

지금의 장년층이 즐겨보던 추억의 만화영화 ‘온하철도 999’에는 명왕성을 배경으로 하는 에피소드가 있다. 여기서 명왕성은 얼음에 뒤덮인 추운 곳으로 나온다.

실제로 명왕성에는 거대한 빙하가 있다. 다만 물이 아니라 질소와 일산화탄소, 메탄이 얼어붙어 생긴 빙하다. 일산화탄소는 ‘연탄가스’의 성분이고, 메탄은 온실가스 중 하나다. 명왕성의 표면 온도는 섭씨 영하 230도 수준이라 이런 기체도 얼어붙는다.

프랑스 파리6대학 연구진은 지난 20일 명왕성에 이 같은 빙하가 생기는 데 지형이 큰 역할을 했다는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 온라인판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 등장하는 빙하는 명왕성의 하트 모양 지형(툰보 지역) 서쪽의 얼음 평지인 ‘스푸트니크 평원’ 안에 있다. 연구진은 스푸트니크 평원과 비슷한 깊이 3km의 분지 지형을 가상으로 만들고 명왕성의 표면 환경과 대기 물질 등을 바탕으로 모델링 했다. 그 결과 이곳의 기압이 주변보다 높아 얼음이 더 잘 얼어붙고, 빙하가 형성되기 쉽다는 것을 알아냈다.

명왕성은 1930년 미국 천문학자 클라이트 톰보(1906~1997)가 발견했고 곧바로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분류됐지만, 국제천문연맹(IAU)은 2006년 8월 행성에 대한 기준을 바꾸면서 명왕성을 왜소행성으로 지위를 낮췄다.

/연합뉴스

‘포켓몬 고’ 기업 최고경영자

한국·중국 진출 의향 내비쳐

포켓몬스터 캐릭터의 라이선스 회사인 포켓몬컴퍼니가 올해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의 선풍적인 인기와 차기 게임 개발계획에 대해 입을 열었다.

포켓몬 컴퍼니 최고경영자 이시하라 쓰네카즈는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포켓몬 고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우리가 예상했던 정도의 10배, 100배 이상이라고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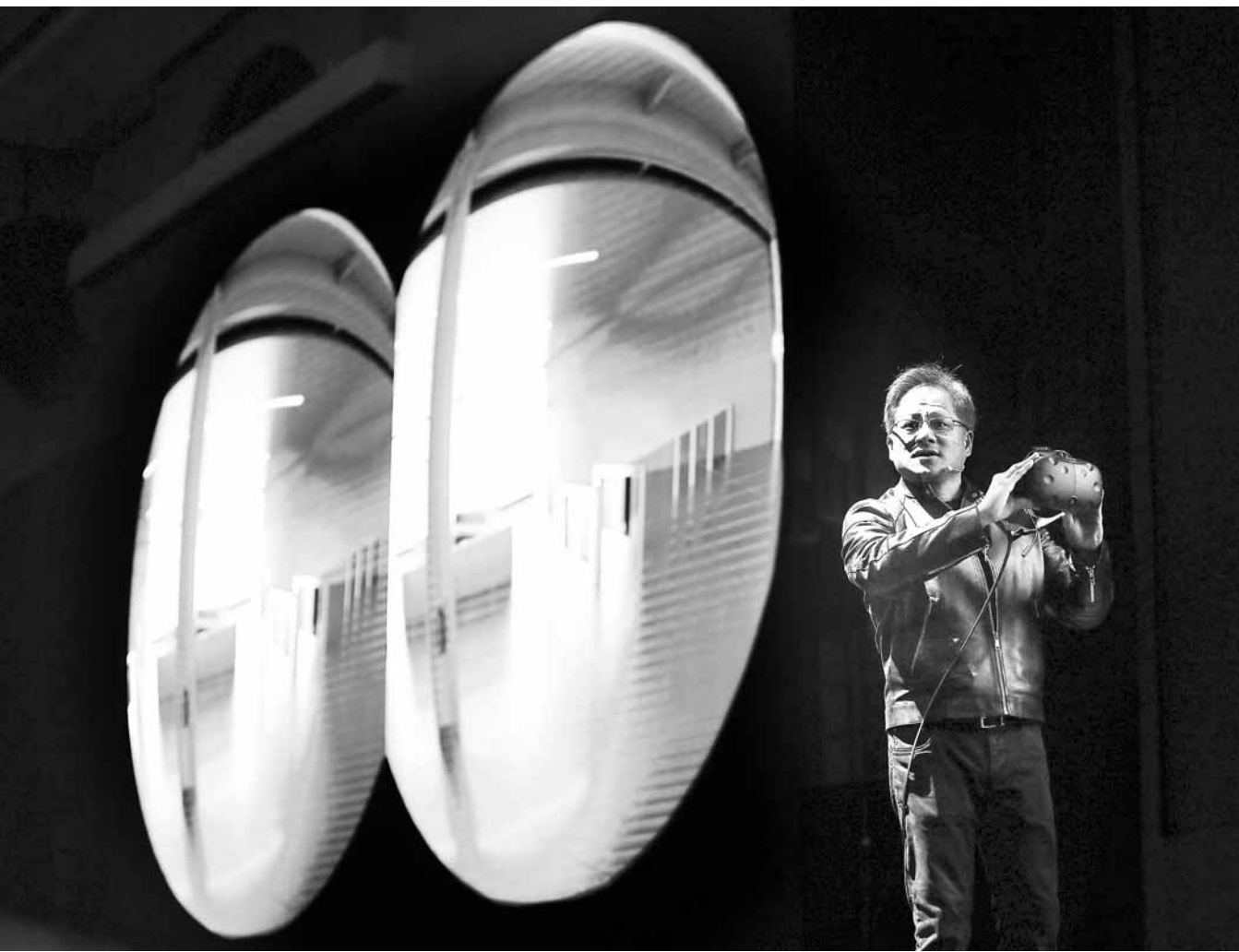
포켓몬 고는 지난 7월 출시된 이래 지금까지 5억 건 이상 다운로드됐다. 리서치 업체 애니에 따르면 지금까지 포켓몬 고 인앱결제로 발생한 매출은 7억 달러(약 78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플레이어 간 대결이나 포켓몬 캐릭터 교환 등의 기능 도입을 계획하고 있지만, 신규 진입 플레이어에 대해 서서히 도입에 나설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포켓몬 캐릭터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닌텐도의 차기 게임시스템 ‘NX’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 NX 시스템은 내년 3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이시하라는 향후 한국과 중국에서 포켓몬 고 게임을 출시하고 싶다는 소망도 내비치면서 현재 중국과 한국에서는 서비스가 제한된 구글지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것이 가상현실 안경

2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GPU 테크놀로지 콘퍼런스’(GTC)에서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이 가상현실(VR) 안경을 사용하는 모습을 청중에게 보이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관련 기업 관계자·연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GPU(그래픽처리장치) 기반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연합뉴스

일본, 방사선 생존 동물 유전정보 해독

인간 저항력 개선 응용 길 터

일본 과학자들이 초저온이나 건조한 환경에서 견디는 것은 물론 강한 방사선에 노출되더라도 생존하는 미소(微小) 동물의 모든 유전정보(게놈)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21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도쿄(東京)대학 과학자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극한환경에서도 거뜬히 생존해 “최강동물”로 불리는 완보동물 ‘구마무시’의 게놈 해독결과를 이날 영국 과학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온라인판에 발표했다.

구마무시는 초저온이나 매우 건조한 환경에서도 생존하며 특히 강한 방사선에 뒤집어쓰고도 살아남는 크기 1mm 이하의 미소동물이다.

연구팀은 구마무시의 일종인 ‘요코즈나구마무시’ 1만5000마리분의 게놈을 해독해 약 2만개 유전자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40%는 구마무시에만 있는 고유유전자였다. 이중 DNA와



구마무시

결합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Dsup’로 명명했다.

‘Dsup’를 사람의 배양세포에 집어넣은 후 X선을 대량으로 쬔 경우 DNA의 양이 절

반으로 줄었다. 그것도 1주일 후에는 다시 증식할 정도가 됐다.

연구팀 대표 구니에다 다케카즈 도쿄대학 조교는 “배양세포 수준에서 이긴 하지만 구마무시의 유전자가 방사선에 대한 다른 동물의 내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우주에서의 실험동물 개발 등 다양한 기술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간을 비롯한 포유동물이 방사선에 대한 저항력을 갖도록 하는 연구에도 응용할 수 있다고 한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일반 부동산 매매, 임대
경,공매 NPL 컨설팅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매 추천물건

- ★ [LPG충전소] 화순읍 대리 대로변 터널식세차시설 사무실포함 토지 3,228㎡ 건물 355㎡ 감정가 12억7천4백 ▶ 최저가 12억7천4백
- ★ [상가] 광주 남구 월산동 동강오피스빌 1층 건물 476㎡ 대로변 전시장 판매장 금융매장추천 감정가 15억 ▶ 최저가 10억5천4백
- ★ [상가]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10층중 10층 스카이라인상가 483㎡ 카페,7080, 맥주전문점 추천 감정가 8억7천7백 ▶ 최저가 4억9천1백
- ★ [토지] 남양 신도시 중앙공원 중심상업지역 대지 439㎡ 조망좋은 상가, 오피스텔 건축 추천 감정가 8억6천5백 ▶ 최저가 6억6백
- ★ [공장]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산단 평동역 인근 기계기구포함 토지 5,895㎡ 건물 2,816㎡ 감정가 29억5천5백 ▶ 최저가 21억5백
- ★ [토지] 나주시 대호동 답 3,379㎡ 2종일반주거 동산대인근 주택단지 건축추천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5천7백
- ★ [공장] 담양읍 삼만리 토지 9,902㎡ 건물 2,921㎡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육가공공장 감정가 44억5천1백 ▶ 최저가 31억1천6백
- ★ [상가] 광주 북구 용봉동 구모양타운 12층중 6층 건물 327㎡ 감정가 6억4천1백 ▶ 최저가 6억4천1백

투자 추천 물건

- ★ [상가] 광주 북구 용두동 대로변 6층상가 대지 525㎡ 은행, 사우나등 고수익 유동인구많은 ▶ 매매 55억원
- ★ [무인텔] 광주 북구 유동 무인텔 대지 1,010㎡ 건물 1,610㎡ 객실 20개 월 5천만원수익 위치좋은 ▶ 매매 20억원
- ★ [상가] 광주 수완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준주거지역 대지 475㎡ 월8백만원 ▶ 매매가 17억
-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대형마트 대지 2,961㎡ 1층 마트, 2층 의원, 3층 학원 대형주차장 매매가 상담결정
- ★ [상가]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신축 4층빌딩 대지 782㎡ 건물 1,829㎡ 보증금 6억 월2천3백 월18억 ▶ 매매 48억
- ★ [토지] 주월동 EG더원아파트 인근 대지 661㎡ 현 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 매매13억원
-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7천 월 3천2백만원 ▶ 매매 50억 (요양병원허가취득)
- ★ [토지]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역앞 대지 480㎡ 업무지원시설부지 코너위치 건폐70% 용적250% 급매가 4억4천 (급매, 조정무)

수익형 추천

- ★ [모텔] 전남 영암군 월출산 조망 5층 모텔 대지 1,181㎡ 건물850㎡ 대로변 내외부깨끗 매매 4억 (용2억7천) 투자적합 장기투숙 다수 직영추천
- ★ [상가주택] 광주 첨단2지구 대지 258㎡ 건물380㎡ 코너위치 1층상가 다가구5세대 안집 월 440만원 용 2억2천5백 매매 9억3천
- ★ [펜션]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수익성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한라산 조망 펜션, 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가능 수익형 28억선 교환
- ★ [오피스텔] 광주 동구 자산동 대지 298㎡ 건물 1,088㎡ 원룸18개 투룸6개 쓰리룸6개 (용4억5천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앞 매매13억5천
- ★ [상가] 광주 소촌동 대형상가 대지 2,146㎡ 주차장빌딩 포함 대형마트, 사우나등 고수익상가 매매 상담결정
- ★ [상가] 목포시 연산동 롯데수퍼 인근 대로변 버스정류장앞 대단위 아파트단지 배후 신축 3층건물 대지 1,461㎡ 광고효과 최상 매매 35억
- ★ [상가주택] 광주 남구 주월동 남구청 인근 고수익 4층상가, 오피스텔 대지 366㎡ 건물947㎡ 지하1층상가 사무실, 2~4층오피스텔 매매13억5천

상가, 주택, 토지, 임야 매매하실분 전속중개 접수 환영 공인중개사 강천구 062-714-2251